

# 재개발 조합장 성과금이 45평 아파트?

〈무등산 아이파크〉

## 광주 학동3구역 과도한 성공 보수 조합원 반발

### 총무이사는 34평 지급 추진... 보류지 2가구 증가도 의혹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광주시 동구 학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무등산 아이파크)이 조합장 등에게 과도한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집행부가 재건축사업의 성과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에 이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성과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정이다. 이 안건은 조합의 보류지 3가구가운데 2가구를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류지 2가구는 전용면적 117㎡(옛 45평)와 84㎡(34평) 규모로 현재 호가 기준 8억원에 이른다.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이나 착오 등의 이유로 공급 주택 총 가구의 1% 한도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가구다.

조합원들은 2013년 관리저분계획엔 보류지가 1가구였는데, 최근 3가구로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고 있다. 관리저분계획의 변경 없이 성공 보수 지급을 위해 보류지를 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학동3구역재개발조합의 한 조합원은 "아파트 공정률이 아직 7%에 불과한데 안전 승인으로 보류지를 지급하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요구될 때 그 몫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조합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해 올해 보수를 2012년 보다 210%나 올렸는데 성공 보수를 또 안전으로 상정한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의 급여와 상여금이 2012년 4000만원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올랐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다"며 "타 지역의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집행부는 조합 임원(7명)과 대의원(22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정당한 보수라고 반박했다. 조종진 조합장은 "무등산 아이파크가 광주 동구에서 보기

드물게 분양에 성공해, 최근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성공 보수 지급을 안전으로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대의원 회의에서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찬성하는 조합원 수가 적으면 성공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2, 지상 28~35층 11개동, 1410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진행중이며 입주시기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한편,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해 4월 조합장과 집행부 14명이 인당 1억 4000만원씩 20억원의 성과금 지급을 안전으로 상정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 속에 부결된 바 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6.59 (-0.65)      금리 (국고채 3년) 1.79%
- ▲ 코스닥 640.29 (+0.21)      ▼ 환율 (USD) 1114.60원 (-8.40)



23일 김한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지점 개점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광주은행 한복환 감사, (주)성파 서운석 회장, (주)보성 허은 부사장, 박인수 잠실지점장, 김한 광주은행장, 강대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스키아칠십이(주) 김영재 대표이사, 삼성토탈 유석렬 사장, (주)삼일이엔씨 신현태 회장, 한양개발(주) 이상선 대표이사, 법무법인행복 김태운 대표변호사.

## 광주은행, 수도권 공략 강화 서울에 잇단 점포 개점

### 잠실·논현지점 공식 영업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서울지역에 잇따라 소형점포를 열고 수도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3일, 김한 은행장과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지점과 논현지점 개점식을 갖고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후보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내정자 신분을 얻게 되며, 다음 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직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전 행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합뉴스

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점식에서 김한 은행장은 "서울은 우리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전남지역 출향인과 상공인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소형점포를 수도권에 전진 배치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도권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오는 30일 추가로 서울 대치지점과 방배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들 지점이 개점하면 광주은행은 서울에 총 9개의 점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농협금융회장 김용환 추천

농협금융지주는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어 차기 농협금융 회장으로 김용환(사진) 전 수출입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후보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내정자 신분을 얻게 되며, 다음 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직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전 행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합뉴스

## 25일 삼성증권 호남포럼

###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서

삼성증권 호남사업부(호남권역장 김태현 상무)가 주최하는 제3회 삼성증권 호남포럼이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이 광주와 전남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는 이종훈삼성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팀장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중국시장전망과 후강동 실시에 따른 중국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여러분의 생각이 행복한 에너지 세상 만듭니다”

### 한전, 전력서비스 개선안 공모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23일 ‘여러분의 생각이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공모를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신규 발굴을 위한 ‘Smart 서비스’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및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Clean 영업제도’ ▲따뜻한 에너지 복지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Kind 한국전력’ 등 3개 부문이다.

우수 제안은 심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4명(각 50만원), 장려상 10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공모는 전기사용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참여는 전기 사용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또는 검침협력사 직원을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전은 국민제안 공모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고객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송인상 효성그룹 고문의 빈소를 조문한 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 ‘건국 1세대’ 송인상 효성그룹 고문 빈소 정·관·재계 애도 물결

### “한국 경제의 개척자”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생존 각료이자 ‘대한민국 근대화 최후의 증인’으로 불린 송인상 효성그룹 고문의 빈소에는 23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정계와 관계, 재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 고인의 외손자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정오에는 사위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그리고 조현준 효성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아 입관식을 지켜봤다. 사돈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허정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이 조화를 보냈다. 이 전 총재는 오전에 직접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이영령 전 문화부 장관, 금진호 전 상관부 장관 등도 모습을 보였다. 현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초기 경제 비전을 밝혀주시고 경제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이재욱 CJ 부회장,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도 빈소를 찾았다. 홍 관장

과 조석래 회장의 부인이자 고인의 셋째 딸인 광자씨는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를 황무지에서 일으켜 세운 ‘한국경제의 개척자’ 호남 송인상 고문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고인은 6·25 전쟁 이후 경제관료로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고인은 전날 오후 2시 50분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25일 오전 6시 30분 열린다. 장지는 대전현충원이다.

/양세열기자 hot@연합뉴스

200억 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